

【우리 시의 향기】

운동주의 '순교적' 비전

—'십자가' 깊이 읽기—

이상섭

연세대 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피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는 ‘무서운 시간’에서 곧 죽을 자기를 무서운 지경으로 불러내어 괴롭히지 말라고, 정체불명의 어떤 부르는 자(“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에게 직접 대답했다.¹⁾ 석 달 뒤에 쓴 ‘십자가’에서 그는 그 무서운 부름에 대하여 아주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는 물음에 직접 거부의 대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십자가’를 준비한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침탑이 저렇게도 높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윤동주는 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할아버지 윤 장로가 주재하는 개신교적 가정 생활 방식에 따라 가정 예배를 보았고 주일에는 교회 집회에 참석하였고 청소년 시절과 대학 시절에도 기독교 학교에 다니면서 매주 몇 번씩의 기도회(채플)에 참석했다. 기독교적 생활 방식은 그에게 습관처럼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는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면 대체로 다 가지고 있는 경험이다.

또한 그러한 기독교인이 청년 시절 거의 반드시 경험하는 것은 비기독교적 내지 반기독교적 사회 현실과 맞부딪치면서 순진 소박한 기독교적 인생관이 받는 심한 도전 내지는 좌절이다. 더욱이 일제의 적극적인 반기독교적 강압 아래에서 기독교적 이상은 너무나 감감히 먼 이야기로만 들릴 수

1) ‘무서운 시간’에 대해서는 필자가 “윤동주 자세히 일기”(근간. 연세대 출판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있었다. 그리고 현실의 괴로움에 더하여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끔찍하달 만큼 너무나 아프게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윤동주는 가정교육에 따라 ‘햇빛’을 ‘쫓아오던’ 청소년이었지만 좀 더 나이가 들어 현실에 발을 붙이고 바라볼 때, 해는 저 높이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다. 교회당도 현실적 삶과 좀 떨어진 곳이지만 교회당 첨탑 꼭대기의 십자가는 높아서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곳이다. 게다가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표상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자신이, 그리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고난으로서 악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의미한다. 민감한 청년 윤동주에게 그것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려운 부름이요, 사명이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교회당 첨탑은 높아서 자기가 직접 올라갈 수 없다. 그러나 첨탑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을 수는 있다. 물론 여기의 종소리는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부름’이다. 그는 ‘또 태초의 아침’에서는 “전신주가 잉잉 울어 /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 무슨 계시일까?” 하고 짐짓 아이 적 이야기를 떠올리며 하느님의 ‘부름’이란 다름 아닌 인간의 일상적 생활을 힘써 하라는 자연스러운 신호에 불과하다고 다소 아이러니컬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그가 그런 ‘부름’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심적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가 걸려 있는 첨탑의 십자가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일상적 교회 생활에서 소외된 자로 자처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와 완전히 단절한 것은 아니다.²⁾ 그

2) 홍기삼은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고 한 말은 무엇을 뜻한 것인가? 그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신의 구원도 낙천적인 복음주의도 인간을 구제하지 못하는 허망한 약속이었음을 뜻한 것이다.”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종교적 고뇌의 의미를 너무 간단히 다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는 또 “예수에게 종소리가 들려 오지 않았”다고 해석하는데(“고독과 저항의 세계”, 이선영 편, 37), 이는 확실히 잘못 읽은 것이고, 윤동주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겠다는 것은 그의 “결연

래서 교회와는 관계가 없는 양, ‘회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지만 교회를 아주 떠나지 못하고 근처에서 배회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 우리는 회파람을 자신감이나 자족감을 위장할 때 불기도 한다. 그것은 속으로 타들어 가는 근심, 좌절, 절망을 숨기고 하는 것이다.

그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근처에서 무관한 사람인 양 회파람 불며 서성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릴 적에 단순하게 믿었고 지금도 절대 고독, 절대 괴로움, 절대 절망(“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³⁾)을 겪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놓지 않고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운동주가 당하는 괴로움을 알아줄 수 있는 이는 예수 자신일 것이라는 끊을 수 없는 느낌 때문에 그는 십자가 근처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때 그는 예수를 저 멀리 높이 있는 ‘주님’으로보다는 인간 중 가장 큰 괴로움을 당했던 ‘사나이’로 가까이 접근하고자 한다. 침탑 위의 십자가는 멀고 높아 접근할 수 없지만 ‘괴로웠던 사나이’는 접근이 가능하고 자기도 괴로운 사나이니까 웬만큼은 동일시도 가능하다. 그런데 ‘사나이’라는 말은 운동주가 ‘자화상’에서 우물에 비친 자기를 가리킨 말이기도 하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한 모습”을 보여 주므로 그를 “민족 시인이라는 에피세트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38).”라고 하는데 이는 운동주를 항일 투사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 3)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할 때에, 그보다 7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의 조상 다윗이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지은 시(구약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인용하였다. 비통한 절규로 시작되는 이 시의 17절에는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서 그가 입었던 옷을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나눠가지는 사건이 벌어진다(마태복음 27장 46절 이하 참조). 그런데 이 시의 23, 24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구절을 도외시한 채 첫 구절만 인용하는 것은 이 시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 역시 이 뒤의 구절 때문에 이 시의 첫 구절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루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 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즉 ‘사나이’는 그가 객관화하여 본 그 자신의 분신이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는 미워하고 얼마 후에는 가없어하고 다시 미워하다가 끝내 그리워하여 추억처럼 그리운 사나이가 된다⁴⁾. 이제 ‘사나이’가 된 예수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4) “운동주 말뭉치”에 보면 운동주는 ‘사나이’를 13번 썼으니 아주 많이 쓴 셈이다. 여기 ‘십자가’와 ‘자화상’ 말고 다른 데에 쓰인 예는 아래와 같다. ‘위로’에서 세 번이나 썼다.

시 그들은 맴돌고, 따라 **사나이**도 맴돌고. ‘가로수’
옥의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쳐다보기 바르게 ‘위로’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 버린다.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위로’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거미줄을 형클어 버리는 것밖에 ‘위로’
가을 이슬이란 선득선득하여서 설운 **사나이**의 눈물인 것이다. ‘달을 쏘다’

인간 예수는 더없이 괴로웠겠지만 과거의 많은 예언서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구세주로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요한복음 19장 30절).”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자기가 믿은 예언대로 되어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즉 소명대로 살고 죽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괴로웠던 사나이’에게나 어울릴 형용사이다. 그리스도는 이 시에서 ‘괴로웠던 사나이’로 변하면서 율동주가 접근할 수 있는, 나아가서는 율동주 자신의 분신으로 다룰 수 있는 보통 남자가 된다.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에게처럼’이라고 쓰지 않고 일부러 조사 ‘처럼’을 떼어서 줄을 바꾸고, 그 불완전한 말로 시의 한 행을 이루게 하여 그 말의 뜻을 강조한 듯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아니고 그 비슷하게 자기에게도 ‘십자가’ 같은 고통의 종말이요, 다 이룸의 행복을 주는 어떤 상징적 행동을 소망하는 것이다⁵⁾. 율동주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의 ‘괴로웠던 사나이’이었으니까 그가 바라던 대로 무엇을 다 이룬 ‘행복’까지도 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십자가는 숭고한 종교적 고통을 이겨낸 승리의 표상이 아니라 인간적 고통이 해소되는 ‘행복’을 기약하는 상징이 된다.

그런데 실상 율동주는 ‘행복’이라는 낱말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는 ‘행복’에 대하여 대체로 아이러니의 시선을 보냈던 것 같다. ‘별똥 떨어진 데’에서 그는 “그리고 보니 행복이란 별스런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 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라고 하여 자기처럼 버릇같이 ‘어둠’속에 있는 자조적인 청년은 ‘행복’과는 별로 인연이 없으므로 그것을 불러들이려면 별다른 이유를 마련해야 할 터이라고 했다. 이 시에서

5) “‘처럼’을 별행으로 처리하는 배려는 아마도 겹혀서 온 게 아닐까 싶다……분명 의식적으로 행을 가르는 경우라 여겨”진다고 김남조는 말한다(“율동주 연구”, 권영민 엮음, 44).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녀는 또 그것이 “운율적 배려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시의 모든 행은 운율적 단위가 되며 모든 운율적 단위는 또한 의미의 단위가 된다고 믿는다.

는 그 별다른 구실이란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되어 있다.⁶⁾ 그러나 십자가가 고통을 딛고서는 구원이 되기 때문이기보다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피를 다 흘리고” 평화롭게 죽게 하는 틀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게 지금 조용히 죽을 수 있음은 행복이라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는 윤동주가 순교나 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명분의 죽음을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알아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 목을 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은 화가들의 매우 중요한 제재로서 그 모습은 신자들에게 고통과 속죄의 의미를 극적으로 일깨워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북돋아 준다. 그러나 윤동주는 목을 드리고 피를 흘리는 예수의 모습에서 회개의 신심을 일으키기보다는 고즈넉한 평화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다. 자기는 예수가 아니고 보통 ‘사나이’이니 ‘목’이 아니라 “모가지를 드리우고” 조용히 피를 흘리겠다고 한다⁷⁾. 그러니까 그가 그려보는 십자가에 달린 자기 자신은 피로웠던 한 사나이의 행복한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인간적으로 미화한 ‘패러디’이다.

그런데 그 피는 ‘꽃처럼 피어나는 피’이다. 이 말은 중요하다. 이 말에는 붉은 피를 흘리겠다는 일상적인 뜻 이외에 마치 해마다 봄이면 다시 ‘피어나는’ 붉은 꽃처럼, 또는 그의 “이름자 문헌 언덕 위에도 / 자랑처럼 풀이” (‘별 헤는 밤’) 돌아날 것처럼 조용하게 죽은 그가 부활하리라는 소망도 조금은 곁들여 있다고 보겠다. 예수의 피는 언제나 새롭게 흐르는 ‘보혈’로서 신자가 고백하는 죄를 말갱게 씻어 준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6) 김우창은 “아마 지적되어야 할 점은 예수를 간단히 행복하다 하고 수난의 피가 꽃처럼 피어난다고 한 묘사의 지나친 낭만 취미일 것이다.”라고 비판한다(“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곳에서”, 이선영 편, 104). 윤동주는 기독교의 준엄함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낭만 취미’란 그러한 회피의 방법으로 예수 수난 장면을 시적, 회화적으로 인간화 내지 미화했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뇌에 찬 청년 윤동주를 생각할 수 있다.

7) 그러나 전통적인 십자가 그림에는 무섭게 구름이 일어 어두운 하늘에 번개가 치고 땅에는 지진이 일고 있어 결코 조용하지 않다. 윤동주의 이 그림에는 그런 무서운 소란이 없이 안식을 기약하듯 하늘이 조용히 어두워갈 뿐이다.

속죄 신앙의 핵심을 이룬다.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히브리서 9장 22절). 그는 만인이 감탄하며 쳐다볼 높은 침탑 위의 십자가에 오를 생각은 절대로 할 수 없다. 다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괴로움의 끝에 무엇인가 ‘다 이론’ 사람으로서의 결말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 나름의 ‘십자가’ 위의 죽음은 오히려 꽃 같은 선혈을 조용히 흘릴 수 있는 좋은 죽음이라고 하고 싶다.

그는 자기가 흘리는 피가 “꽃처럼 피어나는”, 즉 해마다 부활하는 ‘꽃’이 될 염원을 가져 본다. 그 피가 자기의 괴로움을 말갱게 씻어주고 고민의 사슬에서 그를 풀어 주리라는 소망이 그 염원 속에 들어 있는 것 같다. ‘모가지’를 숙이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조용히 피를 흘리는 것은 마치 제단의 제물로 받쳐진 하얀 양이 붉은 피를 끝까지 흘리듯(구약 신명기에는 희생 제물의 피를 모두 흘리게 하여 사람이 조금이라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가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안식과 평화를 줄 것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도 그리스도 자신이나 그의 사도들이었던 베드로나 바울처럼 십자가에 달려 장엄한 순교를 하는 것과는 달리, 마치 화가 루오(Rouault)의 ‘황색의 예수’처럼 평화로운 죽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그치려는, 다시 말하면 그가 끝까지 두려움을 느꼈던 신앙적 차원을 예술적 차원으로 인간화하여 수용하고자 하는 그의 소망적 사고라 할 수 있다.⁸⁾

그러나 어쨌든 예수의 최후 완성을 멀리서나마 본뜨고자 하는 그 행위는 어쩌면 부활을 기약하겠기에 그런 부활의 소망에서 나온 것일 수 있는

8) 오세영은 윤동주가 “기독교의 이념을 거부한다. 적어도 그에 있어서 기독교 휴머니즘은, 종말의식을 극복하는 데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라고 했다(김영민, “윤동주 연구사의 평가 정리”, 이선영 편, 244, 재인용). 확실히 이 해석은 잘못됐다. 그렇다고 이선영처럼 “‘십자가’에서는 종교적 신앙에 바탕을 두고 세계의 어둠에 맞서는 비장한 행동의 결의로 나타”났다고(“암흑기 시인, 윤동주 재론”, 이선영 편, 272) 단정할 수도 없다. 윤동주는 어마어마하게도 십자가를 지는 순교자가 되고자하는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자기의 고뇌를 풀기 위한 상징으로 삼고자 한다는 고백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반기독교적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많은 민감한 기독교 청년의 고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이다.

것이다.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의 수난과 부활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배경을 꽤 잘 이해하지 않고는 계속 수수께끼로 남게 된다.

필자의 이런 해석은 거의 모든 평자의 공식적 해석으로 되어 있는 운동주의 숭고한 자기 희생 의지와는 너무나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읽기가 운동주의 내밀한 고뇌를 더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